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홈페이지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골별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19:00 06:30 (새 벽) 09:30(중고등부)	
		10:30 (교 중) 10:30 (초등부 소성전) 12:00 (낮)	
		16:00(국제미사) 19:00 (청 년) 21:00 (밤)	
	평일	새벽 6:30 / 저녁 7시	(목)오전 10시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3월 6월 9월 12월 두 번째 일요일 (초등부 미사)		

● 알 림

- 봉성체 : 2,3지역 1/10(수) 오전 9시부터
1,4지역 1/12(금) 오전 9시부터 합니다.
- 주차안내 : 주차장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차선내에**
기어를 중립으로 하여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 임

모 임	일 시	장 소
· 위령봉사회 월례모임	1/7(오늘) 12시	보스코홀
· 꾸리아 월례모임 10u 20u 30u	1/14(일) 오후 2시	지하강당
	1/14(일) 오후 2시	소성전
	1/14(일) 오후 4시	지하강당
· 만나회 월례회의	1/15(월) 오전10시	6교실
· 제대회 월례모임	1/16(화) 오전11시	1교실
· 사목위원회	1/19(금) 저녁 8시	지하강당
· 울뜨레아	1/21(일) 교종미사 후	지하강당
· 임원모임 (반, 구역장, 형제회장, 사목위원)	1/24(수) 저녁 8시	지하식당

● 예비신자 교리반

(일) 낮 12시	정홍자 로마나
(화) 저녁 8시	이민규 엘리야 신부님
교리반 등록	1/14(일)까지
세례 예정	2018년 8월
현재 예비자 인원	34명 시작교리 반 12명

*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권면하여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 교 육 / 강 좌

- 16지구 여성 구역장 · 반장 신년하례 미사
 - 일 시 : 1/9(화) 오전 11시 시작
 - 장 소 : 고척동 성당

● 태중 아기 축복식

- 일 시 : 1/20(토) 저녁 7시 토요주일미사 중
- 대 상 : 소중한 생명을 가지신 임산부

● 외부 혼인성사 위임에 대하여

- 외부 혼인성사 위임에 대하여
 - 본당 외(타 본당, 예식장 등)에서 혼인시에 본당 신부님이 아닌 다른 신부님에게 주례를 부탁 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본당 신부님의 주례 위임 허락**을 받은 후에 주례를 부탁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혼인성사 면담 신청은 늦어도 **한 달 전**에 사무실로 미리 접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성가대 단원모집(저녁 7시 미사)

- 미사와 전례를 도와주고 성 음악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임입니다.
- 연습시간 : 매주 일요일 오후5시
- 문 의 : 박훈신 요한보스코 010-5494-6894

● 청소년 분과

- 중고등부 겨울신앙학교
 - 일 시 : 1/11(목)~12(금) 1박2일
 - 장 소 : 의정부 한마음 수련원
 - 대 상 : 중고등부 학생 및 예비 중학생
 - 참가비 : 2만원(본당지원 5만3천원)
 - 문 의 : 이 미카엘라 수녀님(010-8858-8544)

● 자녀들을 위한 기도모임

- 일 시 : 1/12(금) / 저녁 8시
- 장 소 : 피정방
- ※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모임입니다.

● 보스코 성가대(교종미사) 지휘자를 모십니다.

1.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2.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후 2차 개별 면접
3. 제출방법 : 메일 발송 및 우편접수
가) 메일주소 : johncho@nate.com
나)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우편번호 : 08375)
4. 보수 : 면접시 협의
5. 제출기한 : 채용시까지(수시채용)
6. 문의 : 보스코 성가대 단장 010-8949-7142

● 구역미사 안내

- 전반기(3~6월) 한번, 후반기(9~12월) 한번 구역과 성당(지하강당)에서 연간 두 번 거행됩니다.
- 구역, 반모임, 형제모임은 구역별 실시합니다.

● 다음 주일(1/14) 국수잔치 / 청소

국수잔치	11구역	청 소	5구역
※ 청소 담당 구역에서는 빠짐없이 적극 참여하여 주십시오.			

● 성체 분배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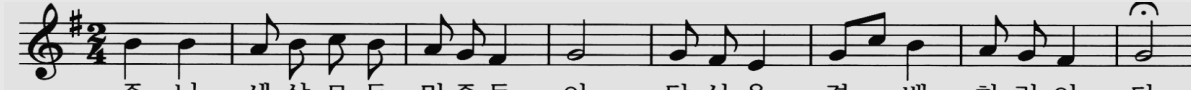
날짜	특전	06:30	10시 30분	12시	저녁7시
1/7	황태영	박승환	손상민 김광수 김인기	박용환	박형순
1/14	장인홍	박승환	박형순 황태영 최상남	최석준	최승일

● 교종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날짜	해 설	복 사	독 서
1/7	황원선	하재민 도현문 심재순 김영길	윤상기 박혜선
1/14	이은희	서윤석 유숙중 오성환 신종구	최승일 정재경

● 우리들의 정성

- 교 무 금 17,760,000원
- 주일헌금(12/31) 6,861,500원
- 오라토리요를 위한 2차 헌금 1,938,470원
-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1/1) 5,397,050원
- 감사헌금 손상민삼백만원 정단순 5만원 조승완 5만원
이호선 5만원 김○○20만원 김○○10만원
홍병화10만원 김○○20만원 유기태10만원
조성현10만원 김정희10만원 이승문 5만원
김현철15만원 강계화20만원 고아라 5만원



회답송 주 님 세 상 모 든 민 족 들 이 당 신 을 경 배 하 리 이 다

교무금 통장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써 주세요.)

2018 교구장 사목교서와 본당의 사목목표와 실천 사항

찬미예수님! 구로3동성당 가족들 모두 새해에도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한해 되십시오.

서울대교구 교구장이신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께서는 2018년 사목 교서를 발표하셨는데 “사랑은 새로운 복음화의 열매”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라는 표어로 사목교서를 내리셨습니다. 교구장님의 사목교서를 아래와 같이 간략히 소개하면서 구로3동 성당의 사목 목표와 실천 사항을 제시합니다.

서울대교구는 2012년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선포하신 ‘신앙의 해’를 기점으로 신앙을 다지는 노력을 해왔는데 그것은 5개년 계획 즉,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미사로 하나되는 신앙’ 그리고 마지막인 올해 2018년에는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그것이다.

사실 지난 4년 동안 말씀과 기도, 교회의 가르침과 미사 전례에 주안점을 두고 사목한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신앙의 토대를 다지기 위함이며 이제는 최종적으로 사랑의 실천적인 행동과 그로인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올해 추구해야 할 과제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의 말씀처럼 “믿음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랑 실천의 중요성은 사도 바오로의 말씀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갈라 5,6)”과 사도 야고보의 말씀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죽은 믿음(야고 2,17)”이라는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다.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 신자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사랑 자체이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내적인 일치와 그분을 향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성경 말씀과 기도,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마침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5개년 사목 계획의 절정인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도 드러나야 하는데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묻는 율법 교사질문에 예수님은 길에서 강도를 만나 고통 받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루카 10,29-37)를 통해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신다. 그러면서도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사람과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관계적인 상황을 주시하도록 하여 이웃 사랑의 개념을 더 확장하여 나와는 별 상관없이 보이는 사람과 영역에서조차도 관심과 사랑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신다. 그리곤 말씀하신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

오늘날의 시대에 이러한 구체적 사랑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도움을 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믿음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제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사목 현장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보십시오.

남녀 봉헌 생활자 여러분, 봉헌 생활 안에서 체험하는 하느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쁨을 교회와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삽시다.

신자 여러분, 가정 공동체와 본당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성장시켜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됩시다.

‘그리스도인 답게’ 살아 학교, 직장, 사회 안에서 사랑을 증거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 한 해 하느님 사랑에 힘입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신앙’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 본당 사목 목표 -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를 만듭시다.

■ 실천 사항

1. ‘감사합니다’의 생활화 (나, 가족, 타인, 하느님)
2. 소외된 이웃에 사랑 전하기 (도움이 필요한 이웃, 냉담자, 예비자)
3. 하느님께 사랑 전하기 (배우기, 희생하기)